

日本の 朱子學**

阿部吉雄*

● 목 차 ●

- | | |
|----------------------|-----------------------|
| I. 朱子學의 전래 | VI. 木門의 융성과 그 밖의 朱子學派 |
| II. 朱子學의 발흥과 京學派 南學派 | VII. 朱子學 비판의 대두 |
| III. 幕府의 官學이 되는 과정 | VIII. 寬政異學에서 幕末로 |
| IV. 惺窩, 羅山의 학풍 | IX. 朱子學派의 세력 |
| V. 闇齋의 학풍 | X. 朱子學 중의 두 경향 |
| | XI. 日本 朱子學의 효용과 특색 |

I. 朱子學의 전래

日本에 朱子の 저술이 처음 전래된 것은 鎌倉시대의 초기이다. 지금도 1200년(正治2년) 大江宗光의 刊記(識語)가 있는 朱子の 『中庸章句』가 동양문고에 남아 있는데, 만일 이것을 신용할 수 있다면 공교롭게도 朱子の 몰년에 이미 朱子の 手著가 전래된 것이 된다. 설사 이를 신용할 수 없다면 치더라도 그 후 10년까지 40년간에 日本의 구도승에 의해 朱子學의 關係書가 점차로 日本에 전해졌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藤原惺窩가 僧衣를 벗어 버리고 德川家康 앞에 나아가 유학의 독립을 표명한 것은 1600년(慶長5년)이므로 그 기간이 400년을 경과하고 있다. 400년이라면 그 후의 德川 300년에 비해서 실로 긴 기간이지만 이

* 전 東京대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5·6호(1975) 게재논문

기간에는 朱子學이 禪僧이나 神道家나 博士家 사이에서 종속적으로 연구되었을 뿐 독립의 지위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鎌倉, 室町幕府에 의해 지지되고 신봉된 것은 宋代에 흥한 新儒學—즉 朱子學이 아니라 禪學이었다. 따라서 朱子의 저술이나 그 학문은 入宋의 승려 또는 日本에 귀화한 宋·元의 禪僧에 의해 부차적으로 도입되고 소개된 것이다.

저 東山泉寺의 開祖 俊仍(1188 入宋~1211 歸日)가 아마도 그 최초의 전래자일 것이고 그가 가져온 도서 2000여권 중에 儒書 256권과 아울러 그중에는 四書의 類도 있었던 것 같고 그의 在宋 중의 교유관계로 보아도 그는 朱子學에 통해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음 日本 臨濟宗의 祖 辨圓圓爾(1235 입송~1241 귀일)도 역시 新註書 11부를 가져온 것은 그의 轉寫된 장서목록에 의해 추정된다. 또한 그는 奎堂의 著 『大明錄』을 北條時賴를 위해 講하고 儒佛道 삼교의 요약을 논술한 것으로 상고하여 그가 朱子學에 통했다는 것도 추정된다. 宋나라에서 귀화한 蘭溪道隆(1264 귀화~1278 몰), 大休正念(1269 귀화~1289 몰), 兀庵普寧(1260 도일~1266 귀국), 無學祖元(1279 귀화~1289 몰) 등은 모두가 유학에도 능통했던 禪僧이었다.

그들은 宋末난리 때에 도피하여 日本에 귀화하여 北條氏의 우대를 받아 문화의 최고의 문적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특히 一寧一山(1299 귀화~1317 몰)은 六朝의 使者로 來日했으나 마침내 日本에 귀화하여 그의 문하에 虎關, 夢窓과 같은 名僧을 배출하고 五山에 있어서의 朱子學 연구의 단초를 열었다. 虎關(1287~1348)과 그 門下인 中巖(1330~1375)은 유교와 불교가 서로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朱子가 엄격하게 불교를 배척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론하는 데 역점을 둔 나머지 朱子學의 전체적 이해가 반드시 충분했다고 볼 수 없으나 夢窓 문하의 義堂(1325~1388)에 와서는 스스로 四書의 공부를 쌓아서 제자들에게도 新註書를 읽어야 한다고 설교했고 장군 兄利義滿에 초빙되어 상경한 후에도 義滿에게 우선 사서의 연구를 권하여 그를 마침내 禪學에 귀의케

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禪僧들은 유불일치적인 사상을 견지하면서도 결국은 선학을 이해시켜 禪學에 귀의케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방편으로서 朱子學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朱子學도 점차 연구하게 되고 室町시대에는 禪보다 儒에 힘쓴 瑞山, 桂庵과 같은 인물도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桂庵(1427~1505)은 周防의 大内氏, 肥後の 菊池氏, 薩摩의 島津氏 등에 流寓하고 지방에 있어서의 朱子學 연구의 발단을 열었다. 그가 1481년에 간행한 朱子の『大學章句』는 日本 최초의 朱子 저술의 출판이다.

이상의 五山禪林에 있어서의 朱子學 연구와 병행하여 朝廷, 官家, 神道家 사이에서도 朱子の 新註書와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가 점차 증가했다. 즉 花園天皇, 後醍醐天皇은 宋代의 新儒學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後醍醐天皇때(1320년 전후경)에 玄惠法印, 日野資朝, 菅原公時등이 서로 無禮講(신분의 차이없이 예의를 벗어나 베푸는 강론)을 열어 열심으로 新註書를 담론했다고 한다. 저 建武의 중흥의 사상적 배경에는 朱子の 大義明分說과 道義觀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당장 단정하기 힘들나 적어도 정신적으로 고무격려한 바는 상상해 볼 수 있다. 그 北畠親房의『神皇正統記』에는 伊勢神道 이래의 宋代 易學의 영향이 보이고 그 南朝正統論도 伊勢神道の 神國觀에서 유래한다고 하지만 宋代의 정통론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神道家의 朱子學 섭취는 이미 蒙古 來襲[元寇] 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나, 室町시대에 이르러 關白北條兼色(1403~1481)이『日本書紀纂疏』가운데서 程子·朱子の 학설을 끌어다가 神道 중심의 神儒佛融合論을 전개하고 그후 吉田兼俱(1434~1511)가 이를 이어받아 吉田神道を 수립할 즈음에 점차 현저하게 되었다.

그러나 朱子學에 관해서 가장 뛰어난 이해력을 보여준 것은 뭐라해도 조정을 배경으로 한 舊來의 博士家이다. 南北朝의 動亂에 의해 朝儀는 점차 쇠퇴되고 박사들의 생활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한편 귀족의 謀筵, 文會까지 禪僧의 활동에 맡겨 버리는 상태를 보고는 그들도 분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漢唐의 五經의 古注를 默守하기를 그만두고 송의 四書의 新注를 섞어서 귀족의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애썼다. 다시 말하면 清原良賢이 將軍 義滿의 進講에 봉사한 이래, 역대 朱子의 新注를 추가해서 그 家學을 보강하는 경향으로 흘렀으나 良賢의 증손 業忠에 이르면 將軍 義政한테 씌여서 권세를 휘두르게 되고 新古注折衷의 學을 보다 명료하게 내세우게 된 것이다. 그는 清原家の 祖 賴業이 朱子의 『四書集註』가 도래되기 이전에 『禮記』 속에서 『大學』, 『中庸』을 표창했다는 설을 유포하여 清原家の 권위를 한층 높이려고 했다. 그리하여 業忠의 손자로는, 神道の 절대우위를 주장하는 唯一神道の 樹立者 吉田兼俱의 實子를 데려다가 養嗣子로 삼았다. 이 사람이 저 清原宣賢(1475~1550)이다. 宣賢은 스스로 新註書의 書寫, 校點에 힘써 新古注 질층의 家學을 발전시켜 그 위에 一條, 吉田 兩家の 神·儒·佛 三教에 걸친 학설도 전수하여 다시 五山の 桃源瑞仙등의 史記 연구의 학도 겸해서 당시의 학문의 집대성을 이룩했다.

따라서 江戸초기에 藤原惺窩, 林羅山이 나타나기 이전에 있어서 이미 朱子의 四書의 學이나 理氣心性의 철학이 어느 정도까지 연구되어, 보는 바에 따라서는 독립의 사상학문으로서 그 자체 연구되는 한 발자국 바로 앞까지 진척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禪林에서는 禪이 으뜸이고 清原家에서는 古注學이 주이고 神道家에서는 神道가 주여서 朱子學은 다만 종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朱子學은 원래 宋代에 있어서 불교에 대항해서 융성한 것이고 또한 漢唐의 古注學을 부정하는 義理學으로서 흥했던 것이다. 따라서 朱子學의 주장 속에는 격렬한 排佛論 내지는 反呪術의 合理主義의 주장과 訓詁學 부정의 주장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五山の 儒佛一致論이나 清原家の 新古注 折衷主義와는 언젠가는 결별하고 분열하지 않을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에 또한 德川家康에 의한 천하통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시대는 사상의 一新을 요구하고 있었다.

II. 朱子學의 발흥과 京學派 南學派

藤原惺窩(1561~1619)가 결연히 禪院을 뛰어나와 儒服을 입고 徳川家康 앞에 나타나 新儒學을 제창한 것은 「세끼가하라(關が原)」戰役이 끝난 직후, 즉 1600년의 일이다. 그는 처음으로 禪僧으로서 五山에 전해진 유불의 학을 전수 받았으나 그로 하여금 불교와 대결하고 博士家와 대결하는 자세를 갖게 한 직접적인 스승은 宋元 및 朝鮮에서 출판된 도서였다. 더구나 그 도서의 대부분은 임진왜란 때 朝鮮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환속하기 직전에 임진란의 포로, 朱子學자 姜沆과 친교를 맺어 많은 격려를 받고 있다. 惺窩가 儒者로서 독립한 것과 朝鮮의 壬辰亂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뒤이어 林羅山(1583~1657)도 처음에는 五山 전래의 문학, 사학을 배우고 후에 清原宣賢의 儒學, 神道學을 흡수했으나 惺窩가 儒者한테 공명하여 차차 朱子學의 圖書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낡은 폐쇄적인 학문전수의 인습을 깨뜨리고 『論語集註』의 공개강좌를 열어 마침내 清原家한테 고발당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다음 해 羅山은 惺窩에게 서한을 보내고 승복을 벗어던지고 儒者로서 독립할 것을 격찬함과 아울러, 惺窩가 암암리에 陸象山의 학을 믿는 것을 논란하고 오로지 朱子學만을 신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불교나 清原家の 학과 대결할 뿐만 아니라 惺窩의 朱陸 절충의 학과도 대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羅山은 무엇으로 그러한 학식을 배양할 수 있었냐 하면 그것은 五山이나 清原家の 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임진란 때 가져온 朝鮮本, 唐本을 독파함에 의해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란은 日本에 인쇄기술의 혁명, 도자기제법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학문사상의 일대변혁을 齊來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羅山은 惺窩와 대결하는 자세를 일시 취했으나 마침내는 惺窩의 문인이 되고 慶長 10년에는 幕府에 초빙되어 家康의 측근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이처럼 근세의 유학 즉 朱子學은 惺窩, 羅山 2인에 의해 사상학

문으로서 독립하고 神佛본위의 중세적 사상이 일신되고 여기에 인간사회의 질서를 주로 하는 현실적인 근세사상이 발흥하는 단서가 트인 것이다. 惺窩는 家康에 봉사하지 않고 市井에 은거하면서 문인을 양성하고 林羅山·松永尺五·堀杏庵·那波活所 등의 이른바 惺窩 門下の 4天王을 내고, 특히 松永尺五는 京都에 체류하면서 木下順庵 등의 門人을 내고, 順庵의 門下에는 新井白石, 室鳩巢, 雨森芳洲 등 몇몇 大儒를 배출했다. 한편 林羅山은 幕府에 봉사하고 幕府文教의 總元締가 되고 그 자손은 대대로 幕府의 교육학문을 담당하여 그 門流가 융성했다.

이상의 惺窩, 羅山の 문류를 京學派 또는 京師學派라 하고 江戸시대 朱子學의 주류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土佐 지방에 퍼진 朱子學의 일파를 南學이라고 한다. 이 파는 周防의 大內氏의 家臣이었다고 하는 南村梅軒이 天文 때에 土佐에 와서 豪族 吉良氏와 승려에게 四書を 講한 데서 비롯한다. 梅軒은 大內氏가 朝鮮에서 가져온 朱子의 書を 自修했다고 전해지지만 그 사적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江戸초기에 僧 慈沖(환속하여 谷時中이라 함)이 나타나 梅軒의 제자 天室에게서 배워 환속하여 朱子學을 講했으므로 谷時中을 南學의 祖로 삼는다. 이는 惺窩의 환속 15년 후의 일이다. 時中の 門人에는 小倉三省, 野中兼山, 山崎闇齋 등 걸출한 인재가 있고 時中도 3인을 제자로서가 아니라 같이 배우는 사람으로 대했다. 三省·兼山은 土佐의 국정에 힘쓰고 闇齋는 京都에 돌아가 義塾을 열고 京學派와는 다른 학풍의 闇齋學派를 건설했으나, 闇齋의 門人에 谷秦山이 나타나 土佐에 돌아가 南學을 부흥시킴에 이르러 南學의 학과명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마침내 明治維新에까지 미친 것이다.

Ⅲ. 幕府의 官學이 되는 과정

幕府은 처음부터 朱子學을 장려하려고 해서 林羅山을 기용한 것은 아

니다. 다만 羅山은 당시의 온갖 신지식을 습득한 박학자였기 때문에 그를 등용했던 것이다. 마침내 幕藩체제도 점차로 안정되고 前시대의 학승들이 凋落함에 따라서 羅山의 지위도 점차로 상승했다. 즉 1630년에는 將軍 家光한테 받은 上野 忍ヶ岡의 땅에 家塾을 일으켜 공자묘를 奉祭하고 마침내 1635년 이후는 足利시대 이래, 五山의 學僧이 관장하고 있던 외교문서의 起草權을 林家에 돌리게 되었다. 이른바 文教의 權은 禪林을 떠나 儒家에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와 전후해서 羅山의 교육을 받은 尾張, 水戶, 紀井의 三家에서 儒官을 등용하고 또한 土佐, 備前 등의 大藩에서 新儒學을 국정에 반영시키려고 해서 儒者를 우대하여 新儒學이 점차 융성하기에 이른다.

幕府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朱子學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四代家綱, 大老保科正之의 시대부터이다. 다시 말해서 幕府은 스스로 자금을 내어서 林家의 공자묘의 大修築을 행하고 또한 羅山의 아들 鷲峰에게 弘文院學士의 칭호를 내려주어 修史의 사업에 당하게 했다. 正之 자신도 山崎闇齋를 스승으로 초빙하고 領内の 정치쇄신을 꾀했다. 마침내 六祿시대가 되면 朱子學은 五代綱吉의 개인적 기호에 따라 幕府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게 되고, 1690년에 幕府은 湯島에 공자묘를 移築하고 將軍이 스스로 祭典에 임해 또한 지금까지의 儒官의 剃髮을 그만두고 結髮을 시켜 羅山의 손자인 林風岡을 大學頭에 임명했다. 이로부터 朱子學은 공식적인 幕府의 관학이 되어 朱子學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IV. 惺窩, 羅山의 학풍

그러나 그에 앞서 이미 朱子學을 학문으로 그리고 사상으로서 비판하는 陽明學派, 古學派들도 점차로 대두되었다. 여기서 우선 京學派, 林家, 山崎派 등의 주장·학풍의 대강을 소개해 두자.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藤原惺窩, 林羅山 2인은 근세 유교문화 시대를 여는 기초를 만든 인물이다. 惺窩는 처음으로 儒者로서 독립한 사람이지만, 그 학풍은 朱子學을 주로 하면서도 그것만을 유일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陸象山·王陽明의 학도 겸용하여 漢唐의 註疏의 가치도 인정한다고 하는 아주 포용적인 것이었다. 또한 漢詩를 사랑하고 和歌를 즐기는 교양적, 취미적인 학풍이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해서는 그 가르침이 인륜을 도외시한다고 해서 크게 배척했다. 惺窩는 朱子學 초창기 사람이므로 詳說은 보이지 않으나 誠敬의 공부를 철저하게 쌓아올려 脫然貫通하여 호연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林羅山은 惺窩와는 달라서 朱子學만을 존숭하여 불교, 그리스도교는 물론 陸象山, 王陽明의 학도 준엄하게 배척했다. 그러나 羅山은 드물게 보는 博學家로 日漢의 사학, 문학을 위시해서 本草學, 병학, 制度學, 神道學 등을 통해서 당시의 온갖 학문을 한 몸에서 흡수했다. 따라서 폭넓은 교양을 갖춘 선비(士人)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주안으로 했다. 즉 널리 日韓의 서적을 읽고 시문에도 힘써 「국가의 용에 쓰일」 인사를 양성하는 것이 林家の 학이다. 그가 중히 여긴 儒書는 명이나 朝鮮의 조정에서 채용하고 있던 『四書大全』 『五經大全』이다. 羅山의 아들 林鶯峰도 아주 박학하여 羅山의 유지를 이어 그 가숙에 經義科, 史學科, 詩文科, 博讀科, 和學科의 五科를 두고 많은 문인을 양성했다. 다만 三代風岡이후에 오면 林家の 학풍에도 闇齋의 학풍이 혼입되어 점차로 『小學』 『四書』 등의 講釋을 주로 하게 되었다.

V. 闇齋의 학풍

이보다 앞서 羅山의 만년에 민간에 中江藤樹가 나타나 林家 朱子學의 교조주의, 형식주의에 반발하여 실천적, 종교적인 陽明學을 제창하여 문하에 熊澤蕃山과 같은 걸물을 냈다. 이와 아울러 한편으로 山崎闇齋

이 나타나 京學·林家의 朱子學과 다른 수양주의적, 행동주의적인 또한 日本주의적인 朱子學을 제창했다. 闇齋도 역시 禪僧에서 儒者로 옮겨와 羅山과 마찬가지로 朱子學 一尊주의를 제창했지만 闇齋의 경우에는 元明 이래 朱子が 참으로 지향한 바가 흐트러진 것을 인식하여 朱子の 저서를 정밀하게 연구하여 곧 朱子が 입교한 원점에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거기서 다만 박학만을 힘쓰는 林家나 京學의 제파를 俗學이라고 하고 인간의 살아가는 길을 오로지 탐구하는 道學이야말로 참다운 유학이라고 하고 강의의 범위도 『小學』 『近思錄』 『大學章句』 『大學或問』 『論語集註』 『孟子集註』 『中庸章句』 『中庸輯略』 『周易本義』에 한정하고 시문에 뜻을 혼입함을 금하고 일상어에 의한 강석을 주로 했다. 그리고 朱子の 거경공리설의 거경을 공리보다 더 중시하고 愼心으로 인간의 본래성을 존양하는 공부에서가 아니면 성현의 지위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즉 敬으로써 항상 身心을 수양하고 義로써 家와 國을 바르게 해가는 것이 인간의 도이며 학문의 목표라고 했다. 더구나 이 도를 자임하는 스승은 존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사제지간을 엄하게 하고 大名에게 봉사함을 꺼렸다.

더 나아가서 闇齋는 朱子の 사상을 日本의 전통사상에 융해시켜 자주적 정신에 서서 朱子學을 실천의 원동력이 되도록 재생시켰다. 예를 들면 堯·舜·文王·武王 또는 孔子·孟子가 日本을 복종시키려 해도 이를 타도하고, 예의덕화로 맹종시키려해도 신하가 되지 않는 것이 春秋의 道이며 日本의 孔孟의 道라고 잘라 말하여, 日本의 외래문화 수용의 바람직한 태도를 가장 명백하고 완강하게 표시했다. 또한 日本 조정의 萬世一系는 만국에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것임을 강조했다. 이것이 幕府末의 존왕운동의 사상적 원천이 된다.

闇齋의 문인은 6000명이라고 하며 그 문류가 크게 번창하여 江戸시대의 사상사, 교육사 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佐藤直方, 淺見綱齋, 三宅尙齋를 崎門三傑이라 하고 그 門流의 三宅觀瀾, 栗山潛峯, 鶯飼鍊齋, 稱齋 등은 水戶學派의 중견이 되었다. 또한 闇齋, 綱齋에 師事

한 谷秦山은 土佐에 돌아가 南學 중흥의 學祖가 되었다. 闇齋는 또한 神道를 연구하고 垂加神道の 일파를 일으켰으므로 그 說은 玉水葦齋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

羅山은 계몽가로서 朱子學을 정력적으로 소개하고 江戸시대의 유교문화의 기초를 쌓았으나 闇齋에 이르러 元明 이래의 朱子學의 혼잡물이 비판되고 道德修養說, 大義名分說로서 철저히 연구되고 소화되게 되었다. 더구나 朱子學 연구는 朝鮮의 이퇴계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바가 많다. 그러나 이처럼 朱子가 연구되어 갈 때까지 가자, 마침내 朱子學이 지니는 약점도 인식되어 마침내 古學派의 대두를 보게 되지만 그에 앞서 京學派의 흐름을 이은 木門 및 그 밖의 朱子學파의 동향을 보기로 하자.

VI. 木門의 융성과 그 밖의 朱子學派

藤原惺窩는 주로 松永尺五에 승계되었으나 그 문인에 木下順庵(1621~1698)이 나타나 그 문하에서 新井白石, 室鳩巢, 兩森芳洲, 祇園南海, 榊原篁洲(이상을 木門의 5선생이라 함) 등 몇몇 大儒를 배출했으므로 元祿期 이후에는 京學派, 특히 木門이 가장 화려하게 활약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木下順庵은 교육자로서 뛰어나고 闇齋派처럼 朱子의 사상만을 精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학파를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十三經注疏』도 숙독할 것을 권하고 시문에도 힘썼다. 그리하여 典故에 통하고 역사학에서 신경지를 개척한 新井白石, 중국어, 朝鮮어에 능통하고 삼교일치를 제창한 兩森芳洲, 技藝法制에 뛰어난 榊原篁洲, 시화문학에 빼어난 祇園南海 등 다방면에 걸친 인재를 배출했다. 室鳩巢는 山崎派의 학을 닦아서 가장 朱子學 사상에 밝고 흡연히 徂徠學과 대결했다.

이처럼 江戸시대의 朱子學과는 그 발생면에서 보면 京學, 南學으로 나누어지고 그 실세력에서 말하면 林家과 木門과 山崎派의 崎門의 삼파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어느 문파에도 속하지 않는, 그 밖의 朱子學과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中村惕齋(1629~1702)와 具原益軒(1630~1714)이다. 두 사람이 모두 저술이 아주 많고 朱子學과 朱子學의 大家이다. 특히 具原益軒은 돈독하게 朱子를 신봉하면서 朱子의 理의 철학에 대해 회의를 품고 명나라 羅整庵의 『困知記』의 설에 의해서 朱子의 理의 철학의 변용하여 氣의 철학을 제창하여 『大疑錄』을 저술했다. 益軒은 또 순수한 朱子學자가 아니라 그 생애에 있어서 유학, 교육, 본초, 의학, 사학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和俗童子訓, 大和俗訓, 樂訓, 養生訓 등을 포함하는 『益軒十訓』은 유창한 日本문으로 기술되어 후세까지 오래 국민들 사이에서 애독되었다. 益軒은 朱子의 합리주의적 측면을 발전시킨 사람으로서 江戸시대의 제일급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다.

VII. 朱子學 비판의 대두

이상은 대략 享保 이전(~1735년)에 활약한 朱子學과의 정황을 논술한 것이지만, 그 사이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朱子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662년(寬文 2년)경 林羅山の 문인, 山鹿素行과 독학으로 朱子學을 연구한 伊藤仁齋는 동서에서 호응하여 의외에도 朱子의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표명했다. 素行은 그의 격렬한 언동 때문에 赤穂에 유배되었으나, 仁齋는 朱子의 理의 철학과 그것에 기초한 욕망부정의 엄숙주의를 일변하여 孔孟 본래의 평명한 인간성의 확충발전설을 제창했을 뿐만 아니라, 朱子가 정해놓은 『四書集註』를 철저히 비판하고 『大學』과 『中庸』을 退하고 『論語』와 『孟子』의 朱子註도 孔孟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 해서 古義學, 복고학을 제창하여 천하

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뒤에 와서 荻生徂徠에 오면 유학의 목적은 성인 군자가 되는 도덕수양의 학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성장케하는 정치기술이나 문예기술 등을 습득하는 것이 학문이며 국가사회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즉 朱子學派나 古義學派에서는 도덕수양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며 정치기술, 사실연구, 문예활동을 한층 가치가 낮은 종속적인 것으로 생각했으나 徂徠에 의해 이처럼 넓은 학문관이 일변되고 유학의 가치체계가 근저로부터 동요되게 되었다.

VIII. 寬政異學에서 幕末로

이리하여 徂徠學이 천하를 풍미했으나 徂徠學이 가져온 폐해도 역시 현저하게 드러나게 됨에 이르러 이로부터 각학파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고 이들을 절충하려는 학풍이 일어나 折衷學은 이후 幕府末까지 풍미하지만, 그 사이에 幕府의 손에 의해서 이른바 寬政 異學의 禁(1790년)이 단행된 것이다. 이처럼 고의학이나 徂徠學이 나타나 朱子學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幕府의 정권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서 町人の 경제적 실력이 상승하고 이에 반비례하여 무사의 권위가 점차 하강한 것과는 손의 안팎과 같은 것이 되어 있다. 朱子學이 내세우는 금욕주의·엄숙주의·이상주의는 점차로 배척되고 향락주의·현실주의가 가치관의 변동을 배경으로 하여 기세를 떨치게 되자, 幕藩체제는 근저에서 동요되었다. 더구나 寶曆이후 농촌의 생태가 치명적으로 악화하기에 이르러 체제의 재건은 긴급을 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老中(江戸幕府 때 장군에 직속되어 정무를 관장한 직위) 松平定信에 의해 단행된 것이 寬政의 개혁이고 그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異學의 禁이다. 이 禁은 전국적으로 사상을 取締하여 朱子學로 통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林家의 家塾에서 朱子學 이외의 儒學으로 講학을 금하고 또한 林家의 家塾

이외에 따로이 幕府 직할의 이른바 공립학교를 세워 학문연마, 考試法의 제정 등의 학제를 정비한 것이다. 이 학교는 昌平黉, 또는 昌平坂學問所라고 하고, 日本의 공립대학의 연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幕府의 조치에 의해 지방의 藩校에서 朱子學자를 교관으로 채용하는 데가 점차 많아지고 朱子學은 명실공히 官學으로서 모습을 갖추었다. 이 昌平黉의 최초의 교관은 柴野栗山, 尾藤二洲, 岡田寒泉 등 이른바 寬政의 前三博士요 뒤에는 岡田寒泉 대신에 古賀精里가 박사가 되었다. 이를 後 三博士라 한다. 또한 이 三博士은 柴野栗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山崎派의 흐름을 흡수한 사람들이다. 또한 異學의 禁은 栗山の 건의로 나왔다고 하나 栗山으로 하여금 건의토록 권면한 것도, 그리고 栗山을 대신해서 赤松滄洲 등의 반대파와 맞서 당당한 논진을 펴서 대답한 것도 西山拙齋(1735~1798)였다.

그런데 異學의 禁이 행해진 결과 異學 특히 徂徠學派는 일대 타격을 받아 朱子學과는 幕府의 지지를 얻어 다시금 세력을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異學의 禁은 청조나 朝鮮왕조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엄격한 전국적인 禁습이 아니었으므로 학계, 사상계는 여전히 활발하여 특히 文化, 文政에서 天保, 嘉永(1804~1854)의 안정기에는 朱子學, 陽明學, 考證學의 大家가 연이어 일어나고 찬란한 문화의 극성시대를 꽃피웠다. 崎門의 흐름을 받은 賴山이 활약한 것도 그 시대였다. 유교에 의한 교육도 보급되고 민간에는 私塾이 일어나고 藩校도 寶曆・天明 간에 50校, 寶政・文政간에는 87校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학계의 융성을 보게 된 것은 寬政의 개혁에 의해 林家에서는 岩村藩에서 養嗣子로서 述齋를 맞아다가 林家塾과 昌平黉의 강화를 꾀한 것과 관련된다. 즉 林述齋(1768~1841)는 昌平黉의 학제를 정하는 한편 官版 300여 종을 출판하고, 또한 중국에서는 亡佚하고 日本에만 전존하는 이른바 佚存書를 편각하고, 또한 10만 이상의 大藩에게 大冊의 漢籍의 출판을 명하는 등 쇠퇴해온 林家의 권위를 일시 만회하려고 애썼다.

述齋의 門에 佐藤一齋, 松崎慊堂이 있는데 慊堂은 朱子學에서 漢唐의 古學에로 옮겨갔지만 佐藤一齋(1772~1859)는 朱子學, 陽明學을 兼修하고 막말의 林家塾長, 마침내 昌平黌의 교관으로서 활약하고 그 문하에 천하의 俊才를 모았다. 朱子學의 문인으로서는 安積良齋, 大橋訥庵, 楠本端山, 佐久間象山 등이 유명하다.

또한 幕末維新 때에 현저한 활약을 한 학파에 水戶學派, 熊本朱子學派가 있다. 水戶學派는 德川光國이 『大日本史』 편찬의 큰 뜻을 품고 전국에서 학자를 초빙한 데서 시작된다. 이때 鶉飼鍊齋, 栗山潛峯, 三宅觀瀾 등 山崎派의 사람들이 그 중핵이 되었다. 또한 明나라의 遺臣 朱舜水와 그 문인 安積澹泊 등이 더불어 그 기초를 쌓았다. 水戶學派의 목적은 朱子의 大義名分說을 응용하여 日本의 國體를 밝히려고 하는 데 있었고 朱子의 철학을 직접적으로 밝히려고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순연한 朱子學파라고 말하기는 힘드나 『大日本史』 편찬의 사업은 오래 水戶에 승계되어 250년이나 걸려 완성되었다. 그 동안 특히 幕末에는 水戶烈公을 중심으로 修史사업을 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활약하고 존황애국의 실천운동에 헌신했다. 藤田幽谷, 藤田東湖, 會澤正志齋, 豊田天功 등이 그 중 가장 저명하고 그들의 주장은 維新의 志士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烈公의 『弘道館記』에 「충효는 둘이 아니고 문무는 나뉘지 않고 학문사업과 그 효용도 다르지 않고 神을 경모하고 儒를 숭상하여 偏黨이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水戶學의 주장이다.

다음으로 熊本の 실학파가 있는데 將軍 吉宗, 家宣 때에 大塚退野(1677~1750)란 이가 있어 朝鮮의 이퇴계의 학풍을 숭모하여 수양을 주로 하는 실천학을 내세운 바 있으나 그 門流에는 幕末明治 때에 横井小楠, 元田永孚 등 영걸을 배출함에 이르러 그의 주장은 어느덧 중앙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元田永孚는 明治天皇의 20세 때부터 천황의 侍講이 되어 천황의 막대한 신임을 받아 明治정부의 교육방침확립에 크게 공헌했다. 그 밖에 明治의 정치가, 문화인 등은 朱子學로 교육된 자가 상당히 많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IX. 朱子學派의 세력

이상과 같이, 朱子學은 幕府의 관학이 되고 교육주의가 되고 확고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각 藩의 藩學교수도 朱子學派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점은 石川謙씨가 『日本學教史の研究』에서 寬永 7년부터 明治 4년까지의 藩學교수의 학파를 조사한 결과의 보고에 의해 한층 명백해진다.

林家塾 출신자	311명
昌平坂學問所 출신자	230명
京學과	99명
그 밖의 朱子學者	456명
闇齋학파	292명
徂徠학파	194명
折衷학파(몇 갈래 학통을 포함)	166명
仁齋학파	77명
古注학파	50명
陽明학파	21명
水戶학파	19명

이에 의해서 官學으로서의 朱子學과 야당적인 朱子學인 闇齋學派의 세력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林家塾에서 배운 자 중의 3분의 1도 못되는 사람밖에 藩儒로서 임관되지 못한 사실이 石川씨의 조사로 밝혀졌지만 이는 家老, 重臣의 자제나 近習役(주군(=藩의 大名)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들이 藩의 교육방침이나 교육시설을 좌우하는 영향력이 한층 강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朱子學이 官學으로서 德川시대의 교육을 지배한 정황은 이로써 명백해진다.

X. 朱子學 중의 두 경향

朱子の 몰후, 朱子の 학문을 어떤 학문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대개 두 갈래 유파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유학의 목적은 우선 자기를 완성하고 남을 다스리고 세상을 좋게하는 修己治人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자기를 완성하는 방법으로서 朱子는 居敬과 窮理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웠다. 窮理란 사물에 즉해서 사물의 도리·법칙을 끝까지 추구하는 지적 공부이며, 居敬이란 항상 심신을 가다듬고 정신을 전일하여 심의 본래성을 돌이키는 행적 공부이다. 朱子는 居敬과 窮理을 수레의 두 바퀴처럼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역설했으나 후세의 朱子學자에는 朱子學은 居敬을 주로하여 기질을 변화케 하는 수양학, 실무학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일파와 窮理를 주장하여 만사만물의 조리법칙을 지적으로 탐구하는 窮理학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일파의 두 파로 갈라졌다. 山崎闇齋派의 학풍은 전자이고, 京學派나 林家·구원익현 등의 학풍은 후자에 속한다.

이 두파는 한 가지로 窮理라고 하더라도 理의 이해에 관해서나 理를 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다. 원래 朱子의 철학은 만물이 理氣의 이원으로 성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만물은 微物質的인 음양의 二氣에 의해서 形이 이룩되나 物의 본성은 우주에서 부여된 理에 의해 결정되고 더구나 그 만물의 理는 결국 一理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朱子는 어떤 경우에는 氣일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理일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쉽게 그의 철학의 奧義를 窺知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16세기 초 明나라의 羅整庵이 『困知記』를 저술하여 朱子의 철학은 氣일원론이고 理란 것은 氣가 활동하는 법칙에 대한 명칭에 불과하다고 하고 理의 실재성, 실체성을 부정하는 철학을 논술했다. 이

는 확실히 朱子의 철학을 환골탈태한 것으로 朱子의 철학과는 다른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이로부터 氣의 철학이 점차 발흥하여 朱子學자 중에서도 理는 氣의 조리, 법칙이라고 파악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林羅山도 초년에 『困知記』를 읽고 공명한 흔적을 볼 수 있고 후에는 확실히 王陽明의 氣의 철학에 찬동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朱子의 철학은 理의 철학이며 인간의 본성은 天理에 기본한 純粹至善한 것이라고 철저히 생각하는 철학이 생겼다. 朝鮮의 이퇴계가 그 대표자이며 그의 철학에 공명한 것이 山崎闇齋派이다. 이 학파 사람들은 理를 단지 氣의 활동법칙일 뿐이라고 생각치 않는다. 개개의 법칙의 배후에 있는 究賴의인 우주의 이법이 자신에게도 실재함을 확신하고 그것을 현현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理를 窮하는 방법도 단지 만사만물의 당연한 법칙을 窮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개체의 배후에 있는 우주적 실재를 自得體認함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개개의 법칙을 물에 卽해서 지적으로 窮해 가는 窮理의 방법은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법칙을 어느 정도까지 窮해 가면 활연관통하여 究極의인 우주적 실재를 자득할 수 있다고 설파한 朱子의 철학은 한 발짝 종교의 세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朱子의 철학에는 본래 과학주의면에 종교적 요소가 섞여 있다. 朱子의 理라는 것도 법칙인 동시에 형이상학적 실재로서 二鍾구조로 되어 있다. 거기서 후세의 朱子學파는 氣의 철학에 동조하는 林家나 具原益軒 등의 일파와, 理의 철학을 강조하는 山崎闇齋 등의 일파로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다.

林羅山은 아주 분명한 것은 아니나 氣의 철학에 동조한 것은 확실하고 安東省庵, 具原益軒에 이르러 완전히 『困知記』의 氣의 철학을 지지하게 되었다. 羅山의 門人 山鹿素行은 朱子의 理學을 부정하고 동시에 伊藤仁齋는 氣일원론을 제창하여 朱子의 理의 철학과 대결하고 동시에 古學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던 것도 林羅山이나 羅整庵의 철학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본다. 氣의 철학에 동조하는 일파는 널리 책을 읽어 人事

와 만물의 조리법칙을 궁하는 일을 주로 함으로써 어느덧 주지주의, 합리주의가 되고 박학주의가 다시 발전하여 박물학에로 나가는 경향을 가진다. 林羅山の 博學, 具原益軒의 博物學은 이와 같은 철학에서 비롯한다. 이에 대해서 理의 철학에 동조하는 일과는 心의 내면에 향해 理의 존엄성을 체인하려고 함으로써 독서의 범위를 넓히기 보다는 한정시키고 넓은 지식보다도 깊은 사색과 자득을 중히 여기는 경향으로 된다. 또한 우주적인 천리를 자기자신에 실현시키려는 일을 인간의 사명으로 함으로써 이상주의적이 되고 신념적 행동적으로 된다. 山崎派이 현실과 타협함이 없이 오히려 현실에 저항하여 활동하고 더구나 尊皇論을 제창하여 幕藩체제 타도의 주동세력이 된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경학, 林家 계통의 朱子學과는 日本의 지식문화의 개발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 자칫하면 현실과 타협하여 幕藩체제의 안정화의 주세력이 되었다.

朱子の 철학에는 理의 철학으로 발전하는 면과 氣의 철학으로 발전하는 두 가지면을 가지고 있다. 理의 철학에 기초한 諸사상을 발전시킨 것이 山崎派이고 마침내 그 파에서 三宅尙齋와 같은 독특한 理일원론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氣의 철학에 동조한 것은 林羅山 일파이지만, 具原益軒에 이르러 그 명확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氣의 철학에 철저한 것은 朱子學과가 아니라 伊藤仁齋 등의 古學派였다. 氣의 철학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긍정하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보므로 욕망을 긍정하여 이를 윤리화하는 도덕설을 주장하게 된다. 具原益軒은 여기까지 나갔으나 다른 朱子學과는 거기까지 철저하지는 못했다. 朱子 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엄격히 부정하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천리야말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理의 철학을 추구한 朱子學자들은 바로 거기에 朱子の 참 정신이 있다고 보아 엄격한 禁慾主義를 제창함과 동시에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본래성, 천리를 추구해 마지 않았다. 본래성이란 애모하지 않을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이며 그 생명은 生하고 또렷하여 끊임없는

생생발랄한 우주의 생명력 「天地의 마음」에 바탕을 둔 것이다. 理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窮理라는 것은 그러한 理를 궁하고 자신을 천리대로의 인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도덕의 실천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사명으로서 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至上명령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곤란한 사태에 처했어도 깨끗하고 고상하게 산다고 하는 준엄한 구도정신이나 이 세상을 선하게 하고 綱常을 扶植하기 위해서는 身命을 걸고서라도 싸운다고 하는 완강한 구세정신은 理의 철학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朱子學의 본질도 거기에 있다고 주창했다.

XI. 日本 朱子學의 효용과 특색

朱子學이 日本에 전해져서 日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효용을 발휘했을까, 또한 日本의 朱子學의 특색은 어디서 구할까, 이 점에 대해서 개관해 보고 싶다.

鎌倉초기 朱子의 책이 전래된 이래 400년간은 말하자면 朱子學의 준비시대이다. 江戸幕府의 개막과 전후해서 藤原惺窩가 유학의 독립을 선언한 이래, 점차 幕府의 비호를 받아 大儒가 배출되고 불교에 대신해서 근세의 지도적 사상이 되고 이른바 유교문화의 시대를 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朱子學에 대한 비판세력도 점차 대두하여 朱子學은 일시 쇠퇴하지만, 寛政 異學의 禁을 경계선으로 하여 林家, 崎門, 木門이 합류하여 다시금 朱子學은 부흥시대에 들어섰다. 明治維新 이래 朱子學은 서구사상에 압도되어 거의 그 모습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으나 명치의 교육관, 가치관의 전통으로서 은연한 힘을 계속 가지고 오늘날에까지도 日本인의 가치의식, 도덕의식에 깊은 영향을 남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朱子學이 興隆하여 日本의 사상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첫째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가 촉진된 일이다. 중세 때의 神佛의 가호를 믿고 미래를 추구하는 세계관이 개혁되고 인

간의 힘을 믿고 현세의 인륜적 질서를 건설하려는 세계관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었다. 그와 동시에 萬法唯一心이라는 禪學的 유심론이 개혁되어 사회의 도리법칙을 마음에만 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물에 구하려는 객관주의의 입장이 더 크게 강조되게 되었다. 林羅山이 문헌실증주의적인 日本사학을 창시하여 日本 사학 흥룡의 단서를 연 것도, 神杜에 남은 고문헌을 집대성하고자 한 것도 校勘學과 本草學에 힘쓴 것도 그 객관주의 합리주의의 한 가지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다. 朱子는 理를 마음 속에서만 구하지 않고 物에 나아가서 物의 이치를 窮理하는 격물 窮理주의를 설파했다. 따라서 이 주의가 발전하면 과학주의가 된다. 사실 후세의 朱子學자 속에서 적지 않게 과학주의자, 과학자가 나타났다. 주술적 종교를 배격하여 무엇보다도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제일의로 하는 사상을 확립하여 지식문화의 개발에 힘써 과학주의의 맹아를 연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日本의 도덕적 심정을 깊이 있게 하고 이상주의적 도덕철학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神佛의 존재를 부정함이 없이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추구를 할 수 있고 천리를 말하고 성인의 이상상을 추구하는 윤리학을 설파한 것은 藤原惺窩에서 비롯한다. 도덕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하는 것이고 우주의 活潑潑地인 생명력에 뿌리한 인애의 마음에 바탕한다는 朱子の 철학은 특히 山崎闇齋派에 의해서 元明의 儒者 이상으로 깊이 파고 들었다. 순수무잡한 동기를 존중하고 천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귀중한 목숨도 내던질 수 있는 강렬한 이상주의적 정신은 예전에 없던 엄격성을 가지고 강조되었다. 학문과 교육의 대목표는 성현에 도달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항상 知를 연마하고 行을 닦아 수양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경우에 무엇보다도 외형을 엄숙히 갖추고 내심을 전일하게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敬공부의 수양법도 오래 崎門에 승계되어 무사도와 「町人道」에 수용되었다. 또한 인간의 자기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修養지상주의적 가치관도 명치, 大正의 교육관의 근본에 영향을 준다.

어쨌든 「一身을 죽여서 仁을 成한다.」 「목이 말라도 盜川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 「武士는 굶어도 이를 쭈신다.」와 같은 사상은 특히 崎門派에 의해 심화된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셋째로, 日本의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幕藩체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한편, 德川 봉건체제 타파의 주동력이 된 점이다. 朱子는 국가천하의 통일을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춘추』의 大一統 사상을 발전시켜 군신상하의 도덕을 가장 존중히 여긴다. 오랜 살벌한 전국시대를 거쳐 덕천幕府이 성립되자 장군을 정점으로 하여 大名, 무사, 농, 공, 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봉건적 신분사회가 성립되었으나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할거주의적인 심정적, 종교적 군신도덕은 달라져서 새로이 시대에 卽應하여 전국의 무사, 領民이 각각의 대명을 통해서 將軍에 귀속되고 천하를 一家로서 통일한다고 하는 보다 합리적인 군신도덕, 국가도덕의 수립이 긴요한 것이었다. 또한 大名武士는 본래의 군무에 복종하는 이외에 영내를 다스리는 치자로서의 지혜와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朱子學은 군신상하의 윤리를 엄격하게 또한 치자로서의 治道倫理를 상세히 설파한다. 따라서 朱子學은 어쨌든 幕府이 받아들일 적격성을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朱子學은 우선 욕망을 억제하고 착실히 자기를 완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교육주의로서는 穩建中正으로 陽明學과 같은 위험성을 동반하지 않는다. 거기서 幕府의 체제는 안정하게 되고 평화가 계속됨에 따라서 점차 幕府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마침내는 관학이 되게 된 것이다. 朱子의 온건한 교육주의와 엄격한 군신도덕이 幕藩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도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그 반면에 幕藩체제를 타파하는 사상적 원인으로도 되었다. 유교에서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왕을 존송하고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覇者를 천시하는 존왕천패의 사상이 예전부터 있었다. 朱子는 이 정신을 역사에 응용하여 『자치통감강목』을 저술하고 정통론도 전개했다. 거기서 日本의 朱子學자는 조정을 왕으로 幕府를 覇로 보아서 林羅山과 같이 幕府를 위해 봉사한 학자도 일찍부터 尊王敬幕을 주장했

다. 이것이 山崎闇齋에 와서는 賤霸의 저의를 감춘 존왕주의가 되고 천견경재에 와서는 이것이 더욱 강렬해지고 水戶光國에 와서는 이것을 史實로 실증하려고 하게 되었다. 또한 闇齋는 천지의 理에 바탕을 둔 군신의 義가 日本에서만이 완전히 실현되고 萬世一系의 천자를 정점에 둔 日本의 國體는 만국에 그 유례를 볼 수 없다고 高唱하게 되었다. 더욱이 闇齋는 순수무잡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강조하고 淺見綱齋에 와서는 儒者가 존송하는 殷의 湯王, 周의 武王을 「國主를 죽인 대죄인」이라고까지 단죄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淺見綱齋의 학과라든가 수호학파에 전해져서 尊王攘夷의 주장이 되고 마침내는 尊王倒幕論이 되어 幕藩체제를 타파하는 사상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日本의 朱子學자는 항상 朱子의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日本의 전통사상의 해명에 도움이 되었다. 朱子의 尊王攘夷 사상이나 大義名分說도 그리고 자국을 主로 하고 이국을 從으로하는 華夷内外를 가르치는 민족사상도 日本이란 나라에 적합시켜 생각하고 자국의 발전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德川光國이 自叙叙 속에서 「神儒를 존송하여 신유를 반박하고 老佛을 숭상하여 노불을 배척한다.」라고 말한 것도 그러한 정신의 표현이다. 또한 처음 專門의 朱子學자에 의해 주창된 朱子學이 드디어 무사의 도덕사상의 중핵이 되고 다시 武士道를 형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민에까지 점차 침투하여 石門心學의 기반이 되었다. 물론 무사도나 石門心學이 朱子學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朱子學 사상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연극이나 講談, 落語 등 속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朱子學은 日本에 있어서 그 합리주의의 측면도, 그 이상주의의 측면도 제법 철저히 구명되었다. 新井白石의 史學, 具原益軒의 博物學, 養生說 등은 합리주의의 성과이고 山崎闇齋, 淺見綱齋의 仁愛의 철학 등은 그 이상주의의 성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朱子의 대의명분설은 山崎學派나 水戶學派에 의해 주체적으로 발전되어 湯, 武의 放伐혁명을 부인하고 절대충성을 강조하는 등 거의 달리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사상으로까지 철저화했다. 또한 朱子學의 교육이 보급되고 무사도적 서민도덕의 형성까지의 기반이 되어 준 것은 明清이나 朝鮮에서 볼 수 없는 日本 朱子學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日本의 朱子學은 우선 神道와 조화되어 神儒합일설을 주장하고 뒤이어 流麗한 「假名」이 섞인 문장으로 教人을 사로잡고 또한 평이한 회화체 말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점차 생활화하여 日本화했다. 室鳩巢의 『駿臺雜話』, 具原益軒의 『益軒十訓』 등이 아주 널리 읽히고 기문의 講義筆錄도 많이 세상에 남았다. 또한 陽明學, 古義學, 徂徠學, 考證學 등이 발흥함에 따라서 그들과의 조화절충이 시도되고 朱子學의 결점도 보강되었다. 陽明學의 요소를 넣은 幕末의 朱子學의 대두 등도 日本 朱子學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요컨대, 朱子學은 江戸시대에 있어서 그것이 지닌 諸정신이 철저화되어 사회에 잘 기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 정 암 譯)